

# 자동화·정보화를 위한 표준화가 시급...

노 시 청 사장



- 약력 : 1951년생, '73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현) 상공부 정보화산업정책심의위원
- (현) 기계공업진흥회 자동화설비 협의회 회장

## (주) 보암산업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국산화를 했는데 팔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부

품사업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부품사업과 관련된 각종 설비를 돈 주고 사려면 너무 비싸서 소재개발하는 기술을 자동화와 연결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소재를 개발할 당시부터 상당부분의 설비를 자체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자동화업체와 관련이 된 것이기도 하죠.

## 자동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여건은?

기업여건이 급변하고, 기술발전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이에 따라 시장변화가 급변하고 생산비 원가감소 등에서 노동비에 대한 구성도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기업경영하는 사람으로 그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숨기쁠 정도입니다.

더우기 산업이 빠른 정보화로 바뀌어 나아가는데 이 정보전에서도 경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중차대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방식이 옛날 경영방식에서의 노하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경영방식이 성공했다는 사람도 없지만 현실에 적응하면서 올바른 방법과 방향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저는 다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화부문에서는 생산자동화도 중

요하지만 사무자동화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생산이 아닌 간접관리부문을 전부 생산으로 볼때 이 간접관리 부문에 효율을 높이지 않으면 원가를 낮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직접생산비의 인건비보다 관리·영업·개발 등 간접생산직 인건비 비중이 두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원가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효율을 높임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기 때문에 생산자동화보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부문에서 우리는 7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전산결재방식을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도 보고 있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자동화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경제활동의 효율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각 기업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루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키우는 생각으로 새로 태어나는 자세로 기업형태를 만들어 가고 자동화를 실행해 나아가야지 돈 주고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 자동화에 있어서 우리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사실은 설비공급업체는 고통스러운 면이 많죠. 수요 업체의 수용자세, 즉 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용자세라면 생산기술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화된 기술을 제조업체에 전달해 주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고 기계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서 생산시설의 노후우까지 만들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화가 들어가면 유지·보수관리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기단계인 정비·유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급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 귀사의 중점개발분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품, 설비 S/W 모두가 개발 대상입니다. 남하던 방식 가지고 경쟁이 안됩니다. 소재 산업으로 시작했지만 기계, 자동화, S/W 도 계속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 귀사의 사업전략은?

일단 상품을 내놓기 전에, 회사를 키우기전에 경쟁력을 확보해 놓지 않고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 경쟁력이라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술력, 관리기술, 시장확보기술, 관련응용기술 등 전체적으로 경쟁력 위주의 전략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장기전에 전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기업여건이 급변하다 보니 Venture성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Venture기업일 경우 위험부담도 크고 또 적자를 보았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잘될 수는 없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관성 있

는 산업이면서도 분리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처럼 소재산업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응용한 부품회사, 자동화공급회사 또 메니지먼트를 위한 S/W를 외부용역을 주어서 사용하게 해보고 하는 정보산업회사를 설립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써서 좋으면 파는 식의 분리경영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 해외시장 진출상황은?

5년전 홍콩서 보암퍼시픽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했었는데, 당시는 한·중 교류가 불확실한 시기였지요. 중국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도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빼이징에 4백만불을 합작했는데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시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응용해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닦은 시장에 활용하기 위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 경영여건에 대한 전망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기업 여건이 자승자박의 모습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기업인, 정치인, 개인 모두가 멀리 내다보고 정석플레이를 해야 하는데, 모두들 멀리 내다보질 않습니다. 기업인은 금방 수입해서 이익만 보려고 하고 일반인도 투기나 해서 한 밀천 잡으려는 사회분위기가 만연돼 있습니다. 기업들도 남의 기술가지고 시장교란

이나 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차후의 기술기반으로 한 차기상품은 개발도 못하는 등 모두가 멀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여건은 비판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정석플레이가 되면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경영철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16년전 회사를 시작해서 현재에 와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도산했습니다. 그 자본·인력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것은 기업들이 정석플레이를 안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저는 "높이 올라 멀리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멀리 보려고 하고 또 멀리 보는 것 같지만 옳도 못본다 말입니다. 1차적으로 국민·국가·기업·개인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전력투구하면 장기전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념이라면 우리회사는 계속 젊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는 쌓아논 경쟁력을 지켜나아가 줄 것입니다.

### 타기업과의 경영에 대한 다른 이미지가 있다면?

저는 기업경영방식을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것, 확률이 높은 것을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벤처기업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았는데 미래의 가능성은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결재방

식, 인사관리, 개발 등이 모두 남이 안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보니까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밀빠진 독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성공확률도 높아집니다.

남의 흉내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경쟁력을 쉽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것이 저의 경영방식이라고나 할까요.

### 여가선용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취미생활에서는 저도 남들이 느끼는 것 만큼 저도 느껴 보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요트, 육상, 사이클 등 다 해 보았지만 여건이 달라지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취미도 자기 여건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가령 골프는 좋은 것이지만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시간이 없는데 멀리가서 낚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자기여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전에 강변에 캠프장을 개장해서 직원들의 윈드서핑클럽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직원가족들과 함께 강연회도 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 자동화의 올바른 방향은?

먼저 자동화는 회사자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자동화는 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항상 진행형이어야 하고 완벽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화의 기술·응용성, 유용성을 갖출 수 있게끔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자동화는 곧 노무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노무관리는 자동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쉽게 자동화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화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지원 방향은?

정부가 정보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미스태이크는 정보화라는 것은 한번 개발하면, 하나의 S/W를 개발하면 전국민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급에는 인건비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지적활용권은 급속히 제한할 수 있는 걸림돌이 바로 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안돼 있다는 겁니다. 호환성이 없는 정보화를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돈이 수 조원에 이른다고 보는데 앞으로 표준화를 못하면 정보화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장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우리실정에 맞게 빨리 방향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산업의 활용과 효용면에서 방향설정을 초기단계에 잡아야 산업의 발전은 물론 기업도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